

한옥 개량,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보자

Improvement of Korean Traditional Housing, Take Note of Outside View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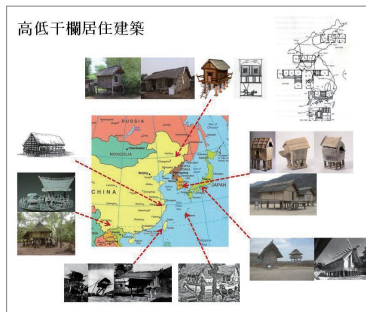
한동수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한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대중적 호기심과 일시적인 유행의 차원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관련 정부 기관의 연구비 지원도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과거 쥐꼬리만한 액수에 비하면 가히 전폭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이다. 나아가 한옥에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직접 실천으로 옮겨져 전국 각지에서는 한옥의 범주에 드는 건물을 발견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한옥의 이름도 신한옥, 개량한옥, 한옥호텔, 한옥 동사무소, 한옥 도서관, 한옥단지, 민속마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시간이 갈수록 부작용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성능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쉽게도 지나치게 내재적인 질서체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옥의 문제를 한옥 자체의 역사변화내지 국내에 보급된 주택과의 비교를 통해 해결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한옥을 구성하는 적지 않은 요소들이 다른 나라의 주택에서도 동일하게 또는 유사하게 발견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온돌만 하더라도 중국 북방의 캉과 다르다고 인식만 하지 그것이 가진 장점과 우리 한옥에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벽면을 온돌처럼 난방 하는 화장(火牆)도 마찬가지이다. 한옥과의 관계를 설정해 보지 않으니 항상 남의 나라 것일 뿐이다. 마루 역시 예외는 아니다. 우리의 마루의 형식을 포함해서 바닥이 지상에 떠있는 구조를 통칭해서 필로티 또는 간란식 구조라고 부른다. 이러한 구조방식은 동남아 일대는 물론 일본 열도, 한반도, 중국 동북 지역, 북유럽 등등 전 세계 각지에서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 근대건축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가 제창한 건축의 5원칙에도 제시된 바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공방식과 재료의 변화에 사로잡혀 전통적인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붕 가구법의 문제도 그렇다. 서양의 트러스만 염두에 두고 있을 뿐 주변 국가의 전통 주택에서 해결방법을 찾아 볼 것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간과한다. 시각만 달리하면 적심과 보토도 해결방법을 알려주는 적합한 사례들을 충분히 찾아 낼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시대의 한옥은 좌식과 입식을 모두 요구하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고 이를 위해서는 영건적도의 다변화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일제강점기 우리주택의 장단점을 다룬 각계 인사의 논의 (출처: 동아일보 1939년 1월 6일자)



간란식 건축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그 범위는 이보다도 훨씬 넓다(필자작성)

필자는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 건축학과에서 한국건축사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립대만대학에서 중국도시사 연구로 석사학위, 청화대학에서 한중고대건축의 비교연구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한 뒤, 귀국 후 목원대 겸임교수, 인하대 전임강사를 거쳐 현재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아시아의 건축, 도시와 관련된 다수의 논문과 저서 및 역사가 있다.

필자는 잘 되 가는 일에 초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한옥이 정부 부처나 전문가들이 원하는 바대로 국내에서는 아파트를 대체하여 가치 있는 삶의 공간으로 보급, 정착되고 국외에서는 세계적인 주거 브랜드로 건축에서의 한류가 되려고 한다면 지금의 생각에서 조금은 바뀌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과거 일제강점기에도 한옥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다. 이른바 생활개선운동이라는 명분 아래 주거환경의 개선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구한 바 있다. 그래서 얻어진 주요한 결론은 한옥이 가진 온돌의 장점을 살리고, 부엌과 화장실의 개량을 통해 위생조건을 향상 시키며, 가족구성 과 삶의 패턴에 맞추어 가족실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배치의 합리화 등이었다. 이것은 일본주택을 비롯해서 양식주택과의 비교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시간의 간격만 있을 뿐 요즘 한옥의 개량을 위한 노력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 주목을 해 볼 관점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한옥의

현재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경제성 위주의 한옥 변신을 일면 수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의 외부 시각에서 바라 볼 수 있는 변화의 선택폭과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한옥은 비로소 이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 성공적인 주거형식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